

미국의 선거인단제도와 부동주 (swing state)

안효종* | 미주리 주립대학교

한기영** | 동국대학교

+ 국문요약 +

기존 미국의 부동주(浮動州, swing state)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선거 캠페인이나 선거과정에서 나타나는 경합성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분석되어 온 반면, 부동주의 지지정당 스윙(swing) 현상의 요인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대선 기간 동안 대통령 후보들의 자금이나 인력 등의 배치나 대통령 후보의 선거 캠페인 동선에 대한 연구와 선거인단 확보에 있어 가장 치열하게 경합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분석 등을 위주로 진행되어왔다. 따라서 학자에 따라 부동주에 대한 정의 및 범위 설정에 있어 서로 각기 다른 기준들이 제시되어 왔다. 본 연구는 기존 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총 9개의 부동주를 선택하여 부동주의 지지정당 스윙 현상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동주는 지난 7번의 대선 기간 동안 적어도 한 번 이상 지지정당을 바꾼 주를 대상으로, 이 중 두 정당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5% 미만을 기록한 주를 부동주로 정의하였다. 부동주의 지지정당 스윙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크게 제도적 요인과 유권자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부동주의 지지정당 스윙 현상은 의회선거의 경합성과 대통령선거 시 두 주요 후보 간 지지율 차이, 투표율, 실업률, 그리고 전체 유권자 대비 부동층 유권자의 비율 등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을 경험적으로 증명하였다.

주제어 | 부동주, 스윙 현상, 선거인단제도

* 주저자. ** 교신저자.

I. 서론

미국의 독특한 선거제도인 선거인단제도(Electoral College)는 유권자 전체 투표수에서 우위를 점하고도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2016년 대통령선거 또한 미국 역사상 5번째로 이러한 상황을 연출하였다. 공식 집계된 발표에 의하면 힐러리 클린턴의 최종 득표는 도널드 트럼프보다 약 290만 표가 앞섰으며 득표율 면에서도 약 2%나 많은 득표를 했다.¹⁾

이러한 일련의 예들은 미국 대통령선거는 연방차원의 집단적인 득표율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 개별 주(州)가 가지고 있는 선거인단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원칙상 미국의 모든 선거는 개별 주의 선거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도 주 정부 차원에서 지게 되어 있다(Frankovic and McDermott 2001). 예를 들면, 대부분의 주는 중범죄(felony)를 저지른 유권자에게는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나 2개 주는 범죄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권을 부여한다. 또한 10개 주는 아예 참정권을 평생 박탈하지만 20개 주는 교도소에서 석방되는 순간 다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²⁾ 즉 개별 주마다 참정권 기준에 있어 각자 다른 규칙과 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선거나 의회선거 등의 연방선거와 주지사 및 주의회선거 등의 주 선거에 상관없이 연방 차원의 선거법이 아닌 주 차원의 선거법에 의해 운영된다.

즉 이러한 제도적 특성은 곧 대통령선거 결정 요인에 있어 특정 주가 다른 주보다 더 중요하다는 명제가 성립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선거는 연방 차원의 전 국가적인 성격이라기보다는 주 정부 차원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에 있어 모든 주가 플로리다 주처럼 경쟁적이지는 않다. 텍사스나 오클라호마 주의 경우는 1980년 이후 한 번도 공화당 후보가 패한 적이 없으며 캘리포니아와 뉴욕 주의 경우는 민주당 후보의 강제지역으로 분류된다. 대통령선거에 있어 약 80%의 주는 이미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지지후보가 결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국의 대통령선거는 몇몇 주에 의해서 판가름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Hecht and Schultz 2015).

1) <http://uselectionatlas.org/RESULTS/>(검색일: 2017-07-05).

2)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Felon Voting Rights," <http://www.ncsl.org/research/elections-and-campaigns/felon-voting-rights.aspx>(검색일: 2017-07-05).

이와 같은 사실은 대통령 후보의 정치자금 사용처를 통해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2012년 대통령선거 시 오바마는 선거자금의 66%를 오직 9개 주에서 사용하였으며, 오바마와 롬니 두 후보 모두 12개 지역(Washington D.C. 포함)에 253번의 방문을 하는 동안 39개 주에는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McLean 2015). 언론을 통해 이러한 주들은 “swing state(이하 부동주, 浮動州)”로 소개되고 있으며 대통령선거 기간 중 여론의 향배에 대해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주이기도 하다. 멀게는 19세기 대통령선거부터 뉴욕, 오하이오, 코네티컷, 인디애나 등이 이러한 성격을 가진 주들로 주목을 받았으며(Baumgarden 1984), 1960년의 선거에서는 6개주에서 두 후보의 득표 차가 1% 미만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가장 최근인 2016년 대통령선거에서는 4개의 주에서 1% 미만의 득표차로 승자가 가려지기도 했다.

이렇듯 몇몇 소수의 주가 대통령선거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즉 캘리포니아나 뉴욕 주처럼 특정 정당에 대한 공고한 지지 기반 없이 대통령선거 시 지지 정당을 바꾸거나 혹은 다른 주에 비해서 유독 경쟁적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이유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의 대통령선거에 있어 특정 주들이 가지고 있는 경합성 혹은 특정 지지기반에 대한 부재는 어떠한 이유에서 비롯되는지에 대해서 논의한다. 즉 부동주로 알려져 있는 주들이 어떠한 특징에 의해 설명되어지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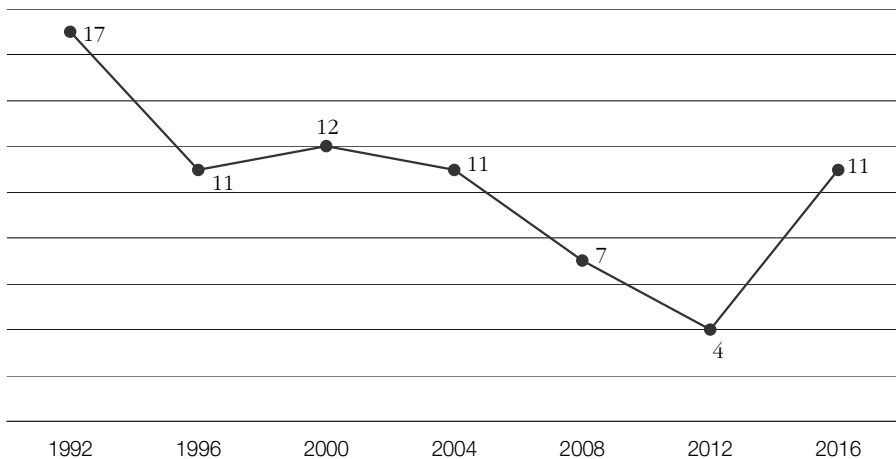
II. 이론적 논의

기존의 논의에서 부동주(swing state)라는 용어는 언론의 전유물이었으며 몇몇 학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Lewis-Beck 1983; Hillygus and Shields 2004; Abramowitz and Saunders 2005, 2008는 예외).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은 “부동주(swing state)” 대신 “접전주(close state, competitive state 또는 battleground)” 혹은 “중요주(critical state)” 등의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James and Lawson 1999; Hillygus and Shields 2004; Frank and Vreese 2007; Abramowitz and Saunders 2005; 2008; Johnson 2005; Burden 2005; Gomez, Hansford and Krause 2007; Kollman 2015). 서로 다른 용어만큼 이에 대한 정의도 다양하게 내려지고 있는데 Johnson(2005)은 양당

후보 간 주 내 전체 득표차가 5% 미만인 주를 “접전주(competitive state)”로 분류하고 있으며, Kollman(2015)은 특정한 수치는 제공하지 않고 매우 적은 득표율차에 의해 승자가 결정되는 주를 “접전주(competitive state)”로 본다. 또한 대통령 후보들이 대선일이 다가올수록 몇몇 특정 주에 선거자금을 쏟아 붓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선거자금이 많이 투입되는 주들을 그 범주에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논의는 그 “경합성”에 주목하고 있다. 첫째, 의회선거와 관련하여 “경합성”에 대한 개념은 메이휴(Mayhew 1974)의 저서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메이휴(Mayhew 1974)는 연방의회선거에서 경합성의 감소가 두 정당에게 더 많은 안전한(safe) 의석 확보를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보다 최근의 연구는 435석의 하원 의석 중 “경쟁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주는 35석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Silver 2012). 이러한 연구결과를 대통령선거에 적용하게 될 경우도 비슷한 주장이 가능하다. 즉 의회선거에서의 경합성의 감소가 결국 대통령선거에서의 경합성 약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대통령선거에 있어 개별 주들의 경합성의 약화 패턴은 몇몇 소수 접전주³⁾들의 중요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림 1>은 1980년 이후 대통령선거에서 5% 이하 득표차로 승자가 결정된 주의 수이다. 전체적인 패턴을 보면 1992년부터

<그림 1> 대통령선거 시 5% 미만의 득표차로 승자가 결정된 주(1992~2016)



출처: 미연방선거위원회(2016)

3) 대다수 원문의 경우, 경쟁주(competitive state)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의미의 전달상 본 연구에서는 “접전주”라는 표현으로 대체한다.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6년 선거에서 또다시 접전주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경합성에 대한 두 번째 논의는 정치문화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하는 주장이 제기된다(Hecht and Schultz 2015). 헤트와 슐츠(Hecht and Schultz)는 엘라자(Elazar 1966)의 정치문화 개념을 미국의 대통령선거에 적용하여 주별로 다른 정치성향이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엘라자(Elzar 1966)는 18세기 이후 각기 다른 국가로부터 이주해 온 이주민들이 어느 지역에 정착했는지를 분석, 미국의 정치문화의 특성을 도덕주의적·개인주의적·전통주의적 정치문화로 구분하였다. 이민자들의 정치적 속성이 그들의 정치성향과 정책 선호도에 반영된다고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 세 가지 다른 정치문화 유형은 주정부와 연방정부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임을 증명하였다.

먼저 개인주의적 정치문화를 가진 지역은 정치란 일반 시장 논리처럼 무한경쟁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장이라고 보고 “좋은 사회(good society)” 등 공공이익의 추구보다는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문화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엘라자(Elazar 1966)의 두 번째 정치문화 유형인 도덕주의적(moralistic) 정치문화는 개인주의적 문화와 달리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일정 정도 개인의 희생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전통주의적(traditional) 정치문화는 현상유지(status quo)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엘리트주의에 가까운 이러한 정치문화는 급격한 변화를 통해 엘리트 계층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비엘리트 계층의 투표 참여를 막고 정치로부터 무관심하게끔 유도하는 정책들을 개발한다고 주장된다.

물론 이러한 엘라자(Elzar 1966)의 정치문화 유형이 유권자 집단의 정책 선호도나 정당 지지 성향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은 분명하나, 왜 특정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경합성이 높은지에 대한 설명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Erikson, Wright and McIver 1993).

부동주에 대한 논의는 정치행태와 관련된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유권자의 정치행태를 설명하는 데 있어 정당일체감은 1950년 이후로 줄곧 가장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어 왔다(Campbell et al. 1964). 그러나 1950년대 이후 미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며(Lewis-Beck 외 2011), 2016년 대통령선거 직전 CNN의 조사에 의하면 약 31%의 유권자가 부동층이라고 밝혔다(CNN 2016). 1950년대 미국 선거여론조사(ANES)에서 오직 6~9% 정도의 유권자만이 부동층이라고 밝힌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비중의 부동층이 생겨났음을 알 수 있다(ANES 2016). 주 내의 부동층 유권자 비율은 몇몇 주들에서 대통령선거 때마다 지지기반이 바뀌어왔는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 훌륭한 지표가 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밝혀왔듯이 특정 지역 내의 부동층 유권자의 비율은

투표율 예측뿐만 아니라 선거의 경합성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Aldrich 1993; Dhillon and Peralta 2002; Geys 2006; Matsusaka and Palda 1999).

이러한 기존의 연구를 대통령선거에 적용하게 되면 부동층 유권자 비율의 증가는 곧 선거에 있어서 경합성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킬리안(Killian 2011)의 정의에 따르면 부동층 유권자란 “특정 지지 정당이 없는 유권자로서 매 선거 때마다 지지 정당이 바뀔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로 정의하고 있다(17). 따라서 다른 주에 비해서 더 많은 부동층 유권자를 보유하고 있는 뉴햄프셔, 콜로라도, 오하이오, 버지니아,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등의 주는 대통령선거 시 항상 접전주로 분류된다고 밝히고 있다(Killian 2011). 메이어(Mayer 2008)도 킬리안(Killian)과 비슷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다른 학자들과는 달리 메이어(Mayer)는 부동층(independent voter) 대신에 다른 용어(swing voter)를 사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비슷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스윙보터란 양쪽 정당 어느 쪽이든 선택이 가능하며, 특정 정당 후보자의 지지 호소가 헛된 노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를 일컫는다”(Mayer 2008, 2). 메이어(Mayer 2008)는 추가로 왜 이러한 형태의 유권자가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04년 대통령선거에서 96%의 민주당 지지자(전체 유권자의 42%)는 존 케리에게 투표를 했으며, 공화당 지지자의 98%(전체 유권자의 45%)는 부시에게 투표를 했으며 전체 13%의 부동층 유권자 53%는 존 케리, 47%는 부시에게 투표를 했음을 예로 들며 부동층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케리를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시에게 승리가 돌아간 이유는 전체 유권자의 45%를 차지하는 비율이 공화당 지지자였기 때문임을 밝혔다. 그러나 만일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자가 같은 비율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부동층 유권자의 지지가 선거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동층 유권자의 표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주장한다(Mayer 2008).

기존의 연구는 부동주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왜 이러한 몇몇 주의 선거가 더 경쟁적이고(competitive)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의 스윙(swing) 현상이 심한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킬리안(Killian 2011)은 인구구성 혹은 그 변화도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이 또한 경험적인 방법에 의해 뒷받침 된 주장은 아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주 내의 집합적인 정당일체감, 즉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구성이 비슷할수록 스윙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 또한 경험적인 연구는 없었다(Mayer 2008; Damore and Gill 2015; Hecht and Schultz 2015). 이러한 몇몇 연구 이외에 대부분의 연구는 “경합성”만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왜 몇몇 소수의 주에서만 지지 후보에 대한 스윙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개척지로 남아 있다.

III. 부동주와 대통령 선거인단제도

1. 부동주에 대한 정의

부동주를 나타내는 표현은 “battleground”, “close state”, “competitive state”, “purple state”, “swing state” 등 매우 다양하지만 각각의 용어는 미세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앞의 세 표현은 의미상 정당 후보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경우를 표현하고 있으나 지지 정당을 바꾼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는 않다. “Purple state”는 “swing state”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두 정당에 대한 지지 유권자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주를 일컫는 표현으로 이 또한 부동주(swing state)가 가지는 있는 표현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Gelman 2009).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부동주라 함은 “swing state”를 지칭한다. 부동주라는 표현은 1936년 뉴욕 타임스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Goux 2010), 주로 언론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 인식되어져 왔으며 학계에서의 사용은 매우 제한적이다. 다만 몇몇 최근의 연구는 부동주(swing state)와 접전주(battleground 혹은 competitive state)와 구분해야 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Kollman 2015; Geer 외 2014). 이들은 접전주의 경우는 의회선거, 특히 상원의원선거나 주지사선거에서도 쓰일 수 있는 반면, 부동주라는 표현은 오직 대통령선거에서만 적용이 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부동주에 대한 사전적 의미도 이러한 주장을 대변한다. 미국 정부와 정치에 대한 사전(Dictionary of American Government and Politics 2010)은 부동주를 지지정당이 바뀌기 쉬운(liable to switch one party to another) 주를 지칭하며 대통령선거 기간에 선거운동이 집중되고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주라고 소개하고 있다.

반면 접전주를 지칭하는 “battleground”와 “competitive state”는 비교적 학자들이 선호하는 표현이다. 쇼와 제이노위츠(Shaw and Janowitz 2008, 52)는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데 있어 가장 위협하고 가장 중요한 주”를 접전주(battleground)라고 표현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러한 정의에 동의하고 있으며 주로 대통령선거 캠페인과 관련된 문헌에 등장하고 있다(Benoit 외 2004; Hill and McKee 2005; Wolak 2006; Gimpel 외 2007; Panagopolous 외 2009). 접전주의 다른 표현인 “competitive state”는 의회선거와 대통령선거 모두에서 쓰이고 있으며 두 정당의 후보 간 격차가 5% 이내인 주들로 한정하기도 한다(Holbrook and Dunk 1993; Johnson 2005).

따라서 부동주를 지칭하는 “swing state”는 이와 유사한 다른 표현들보다는 좀 더 구체

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즉 접전주에 대한 정의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변경 가능성이 언급될 필요가 없는 반면, 부동주는 접전 지역임과 동시에 언제라도 지지정당을 바꿀 수 있다는 표현이 있어야만 그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기준으로 부동주에 대한 정의는 다음의 두 가지 기준을 설정한다.

첫째, 과거 대선 기간 동안 적어도 한 번 이상 지지정당을 바꾼 주를 부동주로 정의한다. 매 대선 때마다 격전주로 분류되는 미네소타 주의 경우는 1980년 이후 총 10번의 대선 기간 동안 5% 미만의 득표차를 기록한 선거가 5번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공화당이 승리하지는 못했다. 특히 1984년 선거는 득표율차가 0.18%였으며 2016년 또한 1.42%로 매우 근소한 차이를 기록했지만 모두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였다. 따라서 미네소타 주는 접전주로 분류할 수는 있지만 부동주의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둘째, 전체 득표율 차이가 5% 미만을 기록한 주를 부동주로 정의한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10% 미만의 득표율 차이를 부동주 혹은 격전주로 정의하기도 하지만(Glaeser and Ward 2005), 이러한 기준은 너무 포괄적이라는 비판 또한 존재한다(Shaw 외 2008; McClurg and Holbrook 2009).

〈표 1〉은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주들을 정리하였다. 1992년 대통령선거부터 2016년까지 총 17개의 주가 적어도 한 번 이상 지지정당을 바꾸었으나 총 9개의 주의 경우만 5% 미만의 득표율 차이로 승자가 결정되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다음의 9개 주를 연구대상

〈표 1〉 미국 대통령선거 시 부동주(1992~2016)

주	득표율 차이가 5% 미만인 횟수	지지정당을 바꾼 횟수
콜로라도	4	3; RDRRRDDD*
플로리다	5	4; RRDRRDDR
아이오와	1	3; DDDDRDDR
네바다	5	3; RDDRRDDD
뉴햄프셔	4	3; RDDRRDDD
뉴멕시코	3	3; RDDRRDDD
노스캐롤라이나	5	2; RRRRRDRR
오하이오	5	4; RDDRRDDR
버지니아	3	1; RRRRRDDD

* R: 공화당, D: 민주당
출처: 미 연방선거위원회(2016)

〈표 2〉 연도별(1992~2016) 분류

연도	부동주 수
1992	5; 콜로라도, 네바다, 뉴햄프셔, 뉴멕시코, 오하이오
1996	2; 콜로라도, 플로리다
2000	4; 플로리다, 네바다, 뉴햄프셔, 오하이오
2004	3; 아이오와, 뉴햄프셔, 뉴멕시코
2008	8; 콜로라도, 플로리다, 아이오와, 네바다,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버지니아
2012	1; 노스캐롤라이나
2016	3; 플로리다, 아이오와, 오하이오

출처: 미 연방선거위원회(2016)

으로 설정하고 있다.

먼저 〈표 1〉을 살펴보면 지난 총 7번의 대통령선거 중 두 정당 간 지지율 격차가 5% 미만으로 결정된 횟수는 평균 3.8회로 연방 평균의 약 5배 정도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즉 부동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는 두 정당 간 득표율 차이가 나는 경우가 7번의 선거 중 0.72회 정도로 이미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승자가 결정되어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지지정당을 바꾼 횟수를 보면 플로리다와 오하이오가 7회의 선거 중 4회 지지정당을 바꾸었으며 그다음으로 콜로라도, 아이오와, 네바다, 뉴멕시코, 뉴햄프셔 등의 5개주는 3회씩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노스캐롤라이나 2회, 버지니아 1회의 지지정당 변경이 있었다.

연도별 분류는 연구대상인 9개의 주 중에 해당 연도의 대통령선거에서 두 정당 간 득표율 차이가 5% 미만인 주를 나타내고 있다. 2008년의 경우, 9개 주중에서 뉴햄프셔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5% 미만의 득표율 차이로 승자가 결정되었으며, 2012년은 노스캐롤라이나 주만 5% 이내에서 승자가 결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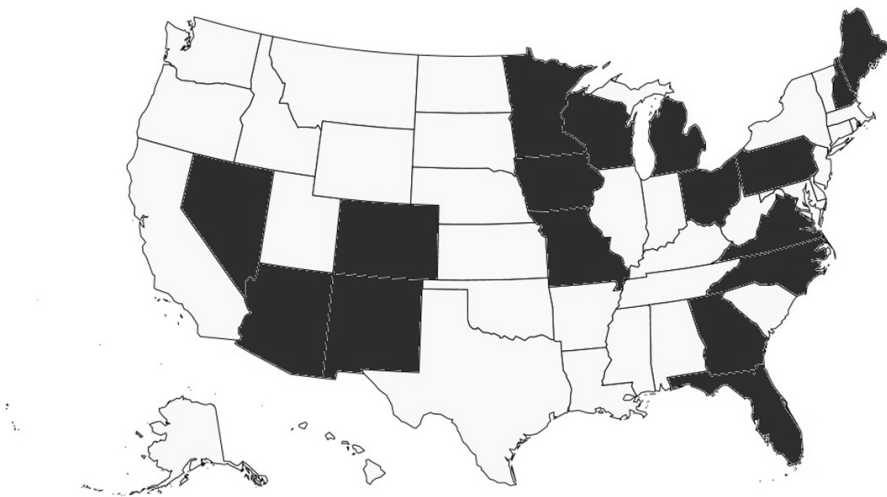
2. 선거인단제도하에서 부동주의 영향력

부동주 현상은 선거인단제도, 특히 선거인단제도하의 승자독식제도의 산물로 보는 경향이 많다(Hutch and Shultz 2015; McLean 2015). 특히 1947년 선거인단제도의 개선을 주장했던 상원의원 헨리 카봇(Henry Cabot)은 선거인단 제도를 “악의 축”이라는 표현까지

지 썬 가며 맹렬히 비난하기도 했다(Bugh 2010). 그러나 선거인단제도의 도입은 1787년 5월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헌법제정회의(Constitutional Convention)의 합의 결과이다. 주별로 서로 다른 인구수에 의한 대표성 왜곡의 완화 및 대통령선거에 있어 지역주의의 방지를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된 것이었다(Diamond 1959). 즉 미국에서의 대통령선거는 전국 유권자로부터 얻은 득표를 그 당선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총 51개 지역(워싱턴 D.C. 포함)의 개별선거 결과를 인구 비례에 맞게 재편성하여 당선자를 가리는 지역 선거의 개념에 더 어울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이한 선거구조는 역사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주요 두 정당에게 유리한 약 40개의 주와 경쟁이 치열한 10개의 주로 구분되게끔 만든 제도적 실패라는 주장이다(Bugh 2010). 즉 두 정당 간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약 10개 주에 거주하는 유권자의 표가 나머지 40개주에 거주하는 유권자의 표에 비해 훨씬 비중이 높다는 데에 있다(Schultz 2016).

부동주를 어느 지역으로 정의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그 정의만큼이나 부동주에 대한 범위 설정 또한 매우 다양하다. 앞선 통계적 분석은 비교적 구체적인 기준에 의해 선정된 9개 주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그러나 언론이나 혹은 기존 연구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 부동주로 지목된 미국의 주는 분석 대상인 9개 주를 포함, 총 17개 주이다. <그림 2>는 이러한 17개 주를 지도상에 표시한 것이다.

<그림 2> 미국의 부동주(swing state) 현황



출처: 미 연방선거위원회(2016) 자료 재구성

〈표 3〉 분석에서 제외한 부동주와 선거결과(1992~2016)

주	선거결과
애리조나	공화당 6회, 민주당 1회(1992년 클린턴)
조지아	공화당 6회, 민주당 1회(1992년 클린턴)
메인	민주당 6회, 공화당 1회(2016년 트럼프)
미시간	공화당 6회, 민주당 1회(1992년 클린턴)
미네소타	민주당 7회
미주리	공화당 6회, 민주당 1회(1992년 클린턴)
펜실베이니아	민주당 6회, 공화당 1회(2016년 트럼프)
위스콘신	민주당 6회, 공화당 1회(2016년 트럼프)

출처: 미 연방선거위원회(2016) 자료 재구성

그림에서 보듯이 지역의 위치상 특별한 패턴을 보이지 않는다. 다만 미국의 대표적인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으로 불리는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주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 지역들의 과거 대통령선거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총 8개 지역 중 공화당 강세 지역 4곳, 민주당 강세지역 4곳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단 한 번 공화당으로 지지정당을 바꾼 시기는 2016년 대통령선거 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였으며, 공화당 강세 지역이 민주당으로 지지 정당을 바꾼 시기는 공교롭게도 1992년 빌 클린턴을 지지했을 당시이다. 미네소타 또한 부동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번의 선거 중 공화당이 승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렇다면 부동주로 불리는 이 지역들의 지지가 과연 대통령의 당선으로까지 이어졌는지를 살펴보자.

〈표 4〉는 부동주로 알려진 총 17개 주의 대통령선거 결과가 실제 대통령의 승리로 이어진 경우를 횡수로 나타낸 표이다. 전국 50개 주를 대상으로 평균을 낸 결과 총 7회의 선거 중 약 3.2회의 일치 결과를 보인 반면, 연구 대상에 포함된 9개 주의 경우는 평균 5.3회로 약 75% 정도의 적중률을 보이며 연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부동주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8개 주의 평균은 4.25회로 이 또한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오하이오 주의 경우는 지난 7번의 대통령선거 모두 주의 선거결과와 대통령 승리자가 일치해 왔다. 콜로라도, 플로리다, 아이오와의 경우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주에서의 승리가 곧 대통령의 당선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4〉 부동산주의 승리가 대통령의 승리로 이어진 경우

주	대통령 승리로 이어진 횟수 (총 7회 중)
콜로라도	6
플로리다	6
아이오와	6
네바다	5
뉴햄프셔	5
뉴멕시코	5
노스캐롤라이나	4
오하이오	7
버지니아	4
평균	5.3
애리조나	4
조지아	4
메인	4
미시간	4
미네소타	4
미주리	4
펜실베이니아	5
위스콘신	5
평균	4.25

출처: 미 연방선거위원회(2016) 자료 재구성

IV. 미 부동산주의 지지정당 변경요인 분석

1. 변수 및 연구가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앞선 7번의 대통령선거에서 부동산주의 특징을 가진 9개 주에 지지하는 정당을 바꾸었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부동산주에 대한 정의는 과거

대통령선거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 지지정당을 바꾸고 5% 득표율 내에서 승자가 결정된 주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지지정당을 바꾸었을 경우, 1, 아니면 0으로 설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모든 자료는 미국의 연방선거위원회(FEC)의 선거 결과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방의회선거, 주지사선거 등의 자료도 활용하였다.

독립변수로는 크게 제도적 요인(institutional level)과 유권자 요인(voter level)의 두 범주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먼저 제도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각종 선거에서의 경합성이다. 먼저 의회선거의 경합성을 살펴보면, 기존 연구는 대체로 의회선거의 결과가 대통령 선거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Campbell 2015; File 2015; Joesten and Stone 2014). 즉 의회선거에의 경합성이 높아질수록 대통령선거에서의 경합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각 주마다 의회선거 지역구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두 정당 후보 간 10% 미만의 득표차로 선거가 결정된 지역구의 비율로 조작화하였다. 5%가 아닌 10%로 보다 넓은 경합성 기준을 선택한 이유는 대체로 의회선거의 경우, 대통령선거에 비해 비경합적(uncontested) 지역 혹은 특정 정당에 유리한 지역(safe district)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주지사선거의 경합성 정도가 대통령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주지사선거와 대통령선거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소 상충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Squire and Fastnow 1994; Brown 2010; Barghothi and Bowman 2010). 즉 주지사선거는 대통령선거와 달리 국가적인 이슈보다는 주 내의 이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주지사선거와 대통령선거의 결정 요인은 다르게 나타난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으로 나뉜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의 연구들은 주지사선거와 대통령선거는 상호보완적이라는 주장이 더 힘을 얻고 있는 듯하다(Erikson, Folke and Snyder 2015). 따라서 본 연구는 주지사선거에서의 경합성이 대통령선거의 경합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가정한다. 경합성과 관련된 마지막 변수는 두 정당 후보 간의 득표율 차이이다. 두 정당 후보 간의 득표율 차이가 클수록 주의 지지후보 변경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 1a〉 연방의회선거의 경합성이 증가할수록 지난 대선 때 승리한 정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1b〉 주지사선거의 경합성이 증가할수록 지난 대선 때 승리한 정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1c〉 대통령선거에서 두 정당의 득표율 차가 적을수록 지난 대선 때 승리한 정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제도요인의 두 번째 변수는 단점정부(unified government) 여부이다. 주 의회의 다수 당과 주지사가 같은 당에 속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주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기반을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

〈가설 2〉 단점정부(unified government)보다는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하에서 지난 대선 때 승리한 정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별 주의 집합적인 정당일체감이다. 본 연구에서는 쿡 정당일체감 지표(Cook's Partisan Voting Index)를 이용하여 개별 주의 정당일체감을 조작화하였다. 쿡 정당일체감 지표는 지난 두 번의 연방의회선거 결과의 득표율을 통해 주 전체의 정당일체감을 수치화한 것이다(The Cook Political Report 2017). 예를 들면, 특정 주의 지난 2회의 의회선거 결과에서 민주당의 득표율이 공화당에 비해서 5% 앞서 있다면 D+5로 표시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R+5로 표시하여 나타낸다. 연구의 편의를 위해 민주당을 양수, 공화당을 음수로 조작화하였다(예: 민주당 5% 우세지역 +5, 공화당 5% 우세지역 -5).

〈가설 3〉 쿡 정당일체감 지수(Cook's Partisan voting Index)가 0에 가까울수록 지난 대선 때 승리한 정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다음으로 유권자 요인을 살펴본다. 유권자 요인 변수는 크게 세 가지 변수를 상정하였다. 첫째, 부동산 유권자 비율을 활용한다. 미국의 50개 주 중 29개 주는 유권자 등록 시 정당일체감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⁴⁾ 전체 유권자에서 부동산 비율을 계산하여 이용한다. 즉 부동산 비율이 높은 주일수록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기반이 약하다는 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선거에 있어 지지정당에 대한 변경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둘째, 투표율 변수이다. 기존 연구는 투표참여 의향과 정당일체감과의 관계가 밀접함을 경험적으로 증명하고 있다(Lewis-Beck 2011). 일반적으로 정당일체감이 높은 유권자일수록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당

4)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http://www.ncsl.org/research/elections-and-campaigns/voter-registration.aspx>(검색일: 2017-07-09).

일체감이 높은 유권자의 투표 참여는 투표율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투표참여율이 저조한 부동층 유권자의 투표 참여가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투표율의 증가는 정당일체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동층 유권자의 투표 참여가 증가했다는 가정이 가능하며 이는 곧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실업률 변수이다. 높은 실업률은 정부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며 이는 곧 지난 선거에서 지지했던 정당에 대해 투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다음은 유권자 요인에 대한 가설이다.

〈가설 4〉 전체 유권자 대비 부동층 비율이 높은 주일수록 지난 대선 때 승리한 정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5〉 해당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높을수록 지난 대선 때 승리한 정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6〉 해당 대통령선거 직전 해의 실업률이 높을수록 지난 대선 때 승리한 정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표 5〉 변수에 대한 정의

변수		설명
종속변수	지지정당 변경 여부	이전 대선과 지지정당이 다를 경우 1, 아니면 0
독립변수	(제도요인)	
	1. 경합성	
	- 의회선거	10% 이내에서 승자가 결정된 의회선거의 비율
	- 주지사선거	두 정당 후보 간 득표율 차이
	- 대통령선거 득표율	대통령선거에서 두 정당 후보의 득표율 차이
	2. 단점정부 여부	주의회 다수당과 주지사의 정당이 같을 경우 1, 아니면 0
	3. 주 정당일체감	주 정당일체감 지수(해당 연도별)
	(유권자 요인)	
	1. 부동층 유권자비율	전체 유권자 대비 부동층 유권자 비율
	2. 투표율	해당 연도의 투표율
	3. 실업률	해당 주의 실업률(1년 전)

2. 미국 대통령선거의 부동주의 정당 변경요인 분석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부동주의 지지정당 변경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모델 1>은 전체 유권자 대비 부동층 유권자 비율 변수가 제외된 결과이며 <모델 2>는 부동층 유권자 비율을 포함하였으나 자료를 구할 수 없는 오하이오와 버지니아 주는 분석에서 빠졌다.

먼저 <모델 1>을 살펴보자.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개별 주의 정당일체감은 부동주의 지지정당 변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대통령선거에 있어 부동주로 분류되는 지역은 지지정당 철회에 있어 정당일체감 이외의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의회선거와의 관계를 보면 두 정당 후보 간 의회선거의 경합성이 높아질수록 부동주가 지난 대선에서 지지했던 정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의회선거의 결과가 대통령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동주 유권자들은 주지사선거와 대통령선거를 별개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주지사선거에서의 경합성은 부동주의 지지정당 철회와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과거 연구에서 보여지듯이 미국 유권자들은 주지사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상이한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quire와 Fastnow(1994)의 연구는 유권자 층이 동일한 주지사선거와 상원의원선거를 분석한 결과, 주지사선거가 상원의원선거보다 내부적인 이슈에 더 취약함을 밝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권자들이 주지사선거와 연방선거와는 다른 기준으로 가지고 투표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대통령선거도 이와 같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연방의회선거와 달리, 거의 대부분의 주의 주지사선거는 대통령선거보다 2년 앞서 치러지고 있다. 특히 본 보고서의 연구 대상인 9개의 주 중에 노스캐롤라이나 주만 대통령선거와 같은 해에 치러질 뿐 버지니아 주는 3년 전, 그리고 나머지 주는 모두 대통령선거 2년 전에 치러지고 있다. 즉 이러한 시기상의 차이가 유권자로 하여금 주지사선거와 대통령선거를 별개의 정치적 행태로 이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가설에서 예측했듯이 대통령선거 시 두 정당의 득표율 차이가 적을수록 부동주의 지지정당 철회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통령선거의 경합성과도 관련이 있으며 두 정당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할수록 지지정당이 뒤바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투표율 변수 또한 부동주의 지지정당 변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투표 참여가 저조한 부동층 유권자의 투표 참여는 투표율의 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부동주가 지난 대선 때 선택했던 정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투표율이 높을수록 집권 정당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업률 변수는 부동주의 투표행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기침체에 대한 책임을 과거 자신들이 지지했던 정당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다.

〈모델 2〉는 전체 유권자 대비 부동층 유권자에 대한 자료를 구할 수 없는 오하이오와 버지니아를 제외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이다. 먼저 특정 주내의 부동층 유권자의 비율은 대통령선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전체 유권자 대비 부동층 유권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선거의 결과가 과거 대통령선거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다만 부동층 유권자 비율은 자료의 특성상 공화당, 민주당, 부동층의 세 범주로 조작화되었기 때문에 조작화의 구체성이 높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주가 유권자 등록 과정을 통일화시킨 2002년 이후부터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을 조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연구의 사례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모델 1〉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던 투표율과 실업률 변수는 〈모델 2〉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모델 1〉과 마찬가지로 의회선거의 경합성과 대통령선거의 두 정당 후보 간 득표율차는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다.

요약하면 미국 부동주의 유권자들은 의회선거와 대통령선거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주지사선거는 별개의 정치적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두 정당 후보 간 치열한 경쟁 및 의회선거에 있어 두 정당 후보 간의 높은 경합성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지지했던 정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업률이 높을수록 지지정당을 바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즉, 경기 침체의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실업률이 높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지난 대선 때 지지를 보냈던 후보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지지를 보냈던 후보에 대한 지지입장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지지정당에 대한 불만은 보다 많은 부동층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이끌게 되며, 이러한 요인들을 통해 부동주의 유권자는 지난 대선 때 지지했던 정당과는 다른 정당을 신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미 대통령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마치 승자가 결정되어 있는 약 80%에 이르는 비경쟁적 주에 비해서 부동주 유권자들의 표심이 미국 대통령들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유권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를 비판하는 일부 학자들은 선거인단 제도가 50개 주 모든 유권

〈표 6〉 부동산주의 지지정당 변경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1992~2016)

변수	Model 1 (9개 주(州))	Model 2 (7개 주(州)) ⁵⁾
의회선거 경합성	2.360** (1.326)	4.489** (1.823)
주지사선거 경합성	.019 (.02)	-.035 (.045)
대통령선거 득표율 차이	-.104** (.008)	-.089* (.014)
단점정부	.237 (.581)	-.511 (1.130)
주 정당일체감	.000 (.107)	.121 (.257)
투표율	6.024** (2.849)	27.547 (14.729)
부동층 유권자 비율	-	34.521** (17.049)
실업률 (lagged)	.277*** (.018)	0.451 (0.351)
상수	-23.271** (11.795)	-100.465 (57.047)
Chi2	0.0511	0.0393
N	63	28

*** $p \leq 0.01$; ** $p \leq 0.05$; * $p \leq 0.1$ (양측검정); 괄호(standard errors)

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헌법적 가치를 잃은 지 오래되었다고 주장한다(Friedman 2016). 이러한 제도는 오히려 소수의 부동산주들에 대한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비헌법적이라는 것이다(Chemerinsky 2016).

5) 전체 유권자 대비 부동층 유권자 비율에 대한 정보가 없는 오키오, 버지니아 주 제외.

V. 결론

기존 미국의 부동주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선거 캠페인이나 선거과정에서 나타나는 경합성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분석되어 온 반면, 부동주의 지지정당 스윙 현상의 요인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대선 기간 동안 대통령 후보들의 자금이나 인력 등의 배치나 대통령 후보의 선거 캠페인 동선에 대한 연구와 선거인단 확보에 있어 가장 치열하게 경합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분석 등을 위주로 진행되어왔다. 따라서 학자에 따라 부동주에 대한 정의 및 범위 설정에 있어 서로 각기 다른 기준들이 제시되어 왔다. 본 연구는 기존 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총 9개의 부동주를 선택하여 부동주의 지지정당 스윙 현상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동주는 지난 7번의 대선 기간 동안 적어도 한 번 이상 지지정당을 바꾼 주를 대상으로, 이 중 두 정당 후보 간 지지를 격차가 5% 미만을 기록한 주를 부동주로 정의하였다. 부동주의 지지정당 스윙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크게 제도적 요인과 유권자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부동주의 지지정당 스윙 현상은 의회선거의 경합성과 대통령선거 시 두 주요 후보 간 지지를 차이, 투표율, 실업률, 그리고 전체 유권자 대비 부동층 유권자의 비율 등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을 경험적으로 증명하였다.

부동주 현상은 미국의 독특한 선거제도인 선거인단제도의 산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며 이에 대한 비판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즉 대선 때마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통령을 결정하는 80%의 주와 매우 경합성이 높은 20% 주 유권자들의 표의 등가성 문제는 선거인단제도에 대한 비판의 핵심인 것이다. 앞선 분석에서 보았듯이 부동주로 분류되는 주가 선택하는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75%로, 이는 전국 평균인 45%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제도에 대한 헌법적 합의가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헌법 사항인 1인 1표제가 위반될 소지가 있다면 이는 분명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도 미국과는 다른 선거법 및 선거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의 표심이 대통령선거를 가늠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민주화 이후 총 6번의 대통령선거 동안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충남의 선택한 후보는 한 번도 빠짐없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선거에 있어서 두 가지 원칙은 선거에 있어서의 자유와 경쟁성의 확보이다. 즉 별다른 노력과 경쟁없이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현재의 정치구조는 분명 미국의 그것과 닮아 있는 것 같다.

참·고·문·헌

- Abramowitz, Alan, and Kyle Saunders. 2005. "Why can't we all just get along? The reality of a polarized America." *The Forum*, Vol.3, No.2: 1-22.
- _____. 2008. "Is polarization a myth?" *The Journal of Politics* 70.2: 542-555.
- Adams, Greg, and Peverill Squire. 2001. "A Note on the Dynamics and Idiosyncrasies of Gubernatorial Popularity." *State Politics & Policy Quarterly* 1: 380-93.
- Aldrich, J. 1993. "Rational choice and turnou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7(1): 246-278.
- Baumgardner, James L. 1984. "The 1888 Presidential Election: How Corrupt?"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14.3: 416-427.
- Benoit, William L., Glenn J. Hansen, and R. Lance Holbert. 2004. "Presidential campaigns and democracy." *Mass Communication & Society* 7.2: 177-190.
- Burden, Barry C. 2005. "Minor parties and strategic voting in recent US presidential elections." *Electoral Studies* 24.4: 603-618.
- Campbell, Angus et al. 1964. *The American Voter*. New York: John Wiley & Sons.
- CNN exit poll 2016. Located at <http://www.cnn.com/election/results/exit-polls>
- Cook, Charlie. 2013. "The Cook political report." Located at <http://cookpolitical.com/about/staff/charlie-cook>
- Cook, Jelen, and Wilcox. 1993. "State Political Culture and Public Opinion about Abortion."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67: 46: 771-81.
- Damore, David, and Rebecca Gill. 2015. "Swing State Politics in the Silver State." In Donald W. Beachler et al. *Presidential Swing States: Why Only Ten Matter*. Lexington Books.
- Dhillon, A., S. Peralta. 2002. "Economic theories of voter turnout." *The Economic Journal* 112: 332-352.
- Dincer, and Johnston. 2016. "Political Culture and Corruption Issues in State Politics: A New Measure of Corruption Issues and a Test of Relationships to Political Culture." *Publius* 47: 131-48.
- Elazar, Daniel J. "Are we a nation of cities?" *The Public Interest* 4(1966): 42.
- Elazar. 1984. *American Federalism: A View from the States* (3rd ed.). New York: Harper and Row.
- Erikson, Robert S., Gerald C. Wright, and John P. McIver. 1993. *Statehouse Democracy: Public Opinion and Policy in the American Stat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sser, Frank, and Claes H. De Vreese. 2007. "Comparing young voters' political engage-

- 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0,9: 1195-1213.
- Federal Election Commission Election Results located at <http://www.fec.gov/pubrec/electionresults.shtml>
- Ferguson, Margaret Robertson. 2003. “Chief Executive Success in the Legislative Arena.” *State Politics & Policy Quarterly* 3: 158-82.
- Fisher. 2016. “Definitely Not Moralistic: State Political Culture and Support for Donald Trump in the Race for the 2016 Republican Presidential Nomination.” *PS: Political Science & Politics* 49: 743-47.
- Frankovic, Kathleen A., and Monika L. McDermott. 2001. “Public Opinion in the 2000 Election: The Ambivalent Electorate.” In Gerald M. Pomper et al. *The Election of 1992: Reports and Interpretations*. New York: Chatham House.
- Frendreis and Tatalovich. 2010. “A Hundred Miles of Dry”: Religion and the Persistence of Prohibition in the U.S. States.” *State Politics & Policy Quarterly* 10: 302-19.
- Gelman, A. 2009. *Red State, Blue State, Rich State, Poor State: Why Americans Vote the Way They Do*.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eys, B. 2006. “Explaining voter turnout: A review of aggregate-level research.” *Electoral Studies* 25(4): 637-663.
- Gimpel, James, Karen M. Kaufmann, and Shanna Pearson-Merkowitz. 2007. “Battleground States versus Blackout States: The Behavioral Implications of Modern Presidential Campaigns.” *The Journal of Politics* 69,3: 786-797.
- Glaeser, Edward L., and Bryce A. Ward. 2006. “Myths and realities of American political geography.”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0,2: 119-144.
- Gomez, Brad T., Thomas G. Hansford, and George A. Krause. 2007. “The Republicans should pray for rain: Weather, turnout, and voting in US presidential elections.” *Journal of Politics* 69,3: 649-663.
- Goux, Darshan. 2010. *The Battleground State: Conceptualizing Geographic Contestation in American Presidential Elections, 1960-2004*. U.C. Berkley Dissertation.
- Hansen, Susan B. 1999. “Governors’ Job Performance Ratings and Unemployment: The Case of California.” *State and Local Government Review* 31: 7-17.
- Hecht, Stacy Hunter, and David Schultz. 2015. “Swing States and Presidential Elections.” In Donald W. Beachler et al. *Presidential Swing States: Why Only Ten Matter*. Lexington Books.
- Hill, David, and Seth C. McKee. 2005. “The electoral college, mobilization, and turnout in the 2000 presidential election.” *American Politics Research* 33,5: 700-725.
- Hillygus, D. Sunshine, and Todd G. Shields. 2005. “Moral issues and voter decision making

- in the 2004 presidential election.” *P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38,2: 201-209.
- _____. 2008. *The Persuadable Voter: Wedge Issues in Presidential Campaigns* (2004).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olbrook, Thomas M., and Emily Van Dunk. 1993. “Electoral competition in the American sta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7,04: 955-962.
- James, Scott C., and Brian L. Lawson. 1999. “The political economy of voting rights enforcement in America’s Gilded Age: Electoral College competition, partisan commitment, and the federal election law.”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3,01: 115-131.
- Johnson, Bonnie J. 2005. “Identities of Competitive States in US Presidential Elections: Electoral College Bias or Candidate-Centered Politics?” *Publius: The Journal of Federalism* 35,2: 337-355.
- Killian, Linda. 2012. *The Swing Vote: The Untapped Power of Independents*. Macmillan.
- Kollman, Ken. 2015. *The American Political System*. WW Norton & Company.
- Larcinese, Valentino, Leonzio Rizzo, and Cecilia Testa. 2006. “Allocating the US federal budget to the states: The impact of the president.” *Journal of Politics* 68,2: 447-456.
- Lewis-Beck, Michael S. 2011. *The American Voter Revisited*.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Lewis-Beck, Michael S., and Tom W. Rice. 1983. “Localism in presidential elections: The home state advantag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48-556.
- Lieske. 2010. “The Changing Regional Subcultures of the American States and the Utility of a New Cultural Measure.”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63: 538-52.
- Lindbeck, Assar, and Jörgen W. Weibull. 1987. “Balanced-budget redistribution as the outcome of political competition.” *Public Choice* 52,3: 273-297.
- _____. 1993. “A model of political equilibrium in a representative democrac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51,2: 195-209.
- Linzer, Drew A. 2013. “Dynamic Bayesian forecasting of presidential elections in the state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108,501: 124-134.
- Matusaka, J. G., F. Palda. 1999. “Voter turnout: how much can we explain?” *Public Choice* 98: 431-446.
- Mayer, William G. 2007. “The swing voter in American presidential elections.” *American Politics Research* 35,3: 358-388.
- Mayer, William G., ed. 2008. *The Swing Voter in American Politics*.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Mayhew, David R. 1974. *Congress: The Electoral Connection*. Yale University Press.
- McClurg, Scott D., and Thomas M. Holbrook. 2009. “Living in a battleground: Presidential campaigns and fundamental predictors of vote choice.”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 62.3: 495-506.
- McLean, Scott L. 2015. "Purple Battlegrounds; Presidential Campaign Strategies and Swing State Voters." In Donald W. Beachler et al. *Presidential Swing States: Why Only Ten Matter*. Lexington Books.
- Middleton, Joel A., and Donald P. Green. 2008. "Do community-based voter mobilization campaigns work even in battleground states?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MoveOn's 2004 Outreach Campaign." *Quarterly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 63-82
- NCSL. <http://www.ncsl.org/research/elections-and-campaigns/election-administration.aspx>
- Panagopoulos, Costas et al. 2009. *Politicking online: The Transformation of Election Campaign Communications*. Rutgers University Press.
- Pomper, Gerald M., ed. *The Election of 2000: Reports and Interpretations*. Chatham House Pub.
- Shaw, Daron R., and P. Janowitz. "Swing voting and US presidential elections." *The Swing Voter in American Politics* (2008): 75-101.
- Silver, Nate. 2012. "As Swing Districts Dwindle, Can a Divided House Stand?" *New York Times* (December 27), located at <https://fivethirtyeight.blogs.nytimes.com/2012/12/27/as-swing-districts-dwindle-can-a-divided-house-stand/>
- Squire, Peverill, and Christina Fastnow. 1994. "Comparing gubernatorial and senatorial election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47.3: 705-720.
- The 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ies(www.electionstudies.org). 2016. TIME SERIES CUMULATIVE DATA FILE [dataset]. Stanford University and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oducers and distributors].
- U.S. Election Atlas. 2016. <http://uselectionatlas.org/RESULTS/>
- Wasserman, David. 2017. "Introducing the 2017 Cook Political Report Partisan Voter Index." THE COOK POLITICAL REPORT located at http://cookpolitical.com/file/Cook_Political_Report_Partisan_Voter_Index_.pdf
- Wolak, Jennifer. 2006. "The consequences of presidential battleground strategies for citizen engagement."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9.3: 353-361.

[Abstract]

The Impact of Swing State on Presidential Election Outcome under the Electoral College System in the United States

Ahn, Hyojong | University of Missouri
Han, Kiyong | Dongguk University

The previous studies of swing state in a presidential election have focused on campaign strategies or its competitiveness. However the reason why a few states have been flipped their supporting party back and forth historically. We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 state swing phenomenon. This report demonstrates the process of making a few states flipping back and forth in a presidential election is complex. The institutional and voter factors on state swing proved to be equally effective in terms of explanatory power. Institutional factors was dominated by the competitiveness across the elections. Only gubernatorial election has not significant effect on state swing. The competitiveness of legislative and presidential election were the main factors of state swing. Among voter level factors, the ratio of independent voters within a certain state was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chance of state's flipping on a presidential election. As voting studies indicate, partisanship has been centered on the discussion of presidential election determinant. Th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previous presidential election studies, implying that the more independent voters a state have, the more likely to change the supporting party in a state among swing states.

■ Keyword: Electoral college, swing state, swing phenomenon